

著作權보호 내년立法

韓·美통상협상 物質特許·生保등은 合意못봐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韓·美양국의 실무통상협상은 4日間의 對坐에도 불구하고 일괄 타결을 이루지 못한채 중단됐다.

金基樞해의협력위 기획단장은 실무협상을 마친 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많은 부문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일괄타결은 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빠른 시일내에

협상재개의 시간과 장소 등의 결정을 위한 접촉을 갖고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단장은 협상중단 이유에 대해 『美國 대표단의 협상스케줄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金단장은 또 협상이 타결되면 합의사항을 문서로 작성, 서명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차이를 보인 것은 物質特許保護의 실시

시기와 생명보험시장 개방문제 등으로 美國은 내년부터 物質特許에 대한 保護를 요청한 반면 韓國은 87 以後 단계적으로 保護하겠다는 意見을 提示했으며, 생명보험시장의 개방문제도 美國측의 완전 개방과 우리측의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개방의견이 提示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著作權保護등에 대해서는 내년 중 입법조치를 해서 보호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IC條約 87年 체결 내년 6月 기본條約案 제출

特許廳에 따르면 WIPO는 반도체집 보호법을 이미 제정한 美·日 양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 국제조약의 기본방침을 확정, 86년 6월에 개최되는 WIPO 知的所有權 전문가위원회에 기본조약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브라질 印度 등 WIPO의 일부 회원국들은 기술 이전의 저해등을 이유로 異見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국제조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87년 중에는 이 국제조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美國은 84년 반도체집 보호법을 제정했으며, 日本도 85년 국회에서 반도체집보호법을 입법화했다(86년 1월부터 시행). 지난 11월 말 제네바에서 열린 WIPO 知的所有權 전문가위원회는 반도체집적회로의 국제적보호 필요성을 인정, 국제조약의 조기체결에 동의한 바 있다.

特許廳 90年代 초반까지 業務自動化

第128回 定期國會 提出書類서 밝혀져

특허청이 제128회 정기국회에 제출한 特許行政전산화 추진현황에 따르면 선진국(美國·日本등)에서 현재 개발하여 처리하고 있는 PCT 出願業務, 審判業務, 특허·실용의 기술자료檢索·包裝管理業務, 工業所有權 통계, 手作業 사무처리등에 대한 자동화업무를 90년대 초반까

지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진국의 PAPERLESS 계획을 검토하여 특허청 실정에 적합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0년대 후반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特許廳은 81년 8월 전산기를 도입·일부 개발업무를 전산처리하고 있다.

登錄稅 납부서 양식 變更

서울시, 不條理 防止 위해

서울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거 등록세 납부서를 변경 실시했다.

이는 등록세 수납과정에서 관련 부서 종사원들의 횡령 및 부조리가 적출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등록세 납부서 및 업무처리

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했으며 이에따라 앞으로는 양식의 복사사용과 구양식 사용등은 불가능하게 됐으며 대한번리사회에서 수령한 新양식에 의해서만이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吳>